

가구저널

www.mfj.co.kr

Furniture Journal



5 i saloni 2006

PEOPLE 차규순 셋별산업 대표

FOCUS 건축 디자이너가 바라본 가구 디자인

DESIGNER 김경원 | 삶의 형태와 기능을 따른다

May 2006



1129-1288-9291



평온한 한국적 心想이 담긴 New Orientalism 구현

제10회 최병훈 아트피니처展, 파리에서 5월 4일부터 한 달간 개최

최병훈의 조형세계

家, 고요한 빛형 안익호, 미술사학자, 박사

1. 머리말

자연스러운 木理文과 합리적인 구조로 실용과 미를 갖춘 우수한 조형으로 널리 사랑을 받아왔던 조선 목가구의 전통은 근대 이후 형태적 변용을 보이며 각각이 그 별개의 저주 출제했다. 1960년대 들어 현대식 주거생활로 바뀌어지며 목공예분야에도 시구에서 미술공예운동(Art & Crafts Movement) 이후 전개된 양식운동에 따라 형식화 된 현대 디자인이 수용됨과 동시에 한국화 됐다. 1970년대에는 공예 본래의 목적에 따른 실용적인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초부터는 기능보다는 조형미에 중점을 둔 오브제 위주의 새로운 조형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상업화적인 제품과는 확연히 구별해 작가의 개인적 술탄이 발현된 일품공예로서 한국의 현대공예를 이끌어 갔다.

Furniture Artist 최병훈은 바로 그러한 한국현대공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작가이다. 그는 한국현대공예 3세대로서 1977년에 창간자가들의 모임인 '현대공예문화회'를 조직해서 새로운 조형운동들을 전개시킨 공예운동가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Art furniture라는 개념으로 현대목공예를 제도화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작업들은 다른 공예분야에도 영향을 줬으므로 한국 공예자살 뚜렷한 의의를 지니는 작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병훈의 조형세계는 1970년대에 여행을 통해 멕시코 마야문명이나 페루 잉카문명, 인도문명, 아프리카 나그르미문화에 대한 지적 재탐을 한 후 형성된 국제적인 안목에 의해 구축됐다. 또한 1980년대 핀란드와 미국에 체류하여 가구를 연구했던 경험을 토대로 기능면에서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제품이나 표현수단은 지극히 한국적인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그는 화강암 등의 자연미를 그대로 수용, 목재의 대미시켜 인위화코도 고요한 분위기를 표출시켜서 작품을 대하는 觀者를 역시 고요한 '명상'으로 빠져들게 한다.

1. 최병훈의 전설 04-215, 775 x 230 x 890, 연꽃나무, 벽걸이, 자연석

2. 최병훈의 전설 04-214, 1750 x 550 x 880, 연꽃나무, 자연석

3. 최병훈의 전설 05-225, 830 x 370 x 800, 흑단

4. 최병훈의 전설 06-231, 850 x 310 x 645, 흑단

2

3

4



5



6

5. 채호의 전방 06-223, 650 x 420 x 450, 대리석, 자연석
6. 채호의 전방 06-224, 1200 x 700 x 320, 대리석, 이빨, 자연석
7. 채호의 전방 05-228, 1820 x 900 x 300, 흑단
8. 채호의 전방 06-233, 1500 x 390 x 255, 흑단
9. 채호의 전방 05-222, 80 x 510 x 100, 산호나무 뒤 꽃잎, 자연석
10. 채호의 전방 05-219, 1770 x 820 x 270, red sandalwood 뒤에 꽃잎

II. 寓, 冥想의 초상

한국에 더의식을 근대로 새로운 조형을 추구해오던 최형훈은 1980년대 들어서 “예술이 생활에 반영될 때, 그것은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신념 아래 ‘Art Furniture’라는 별명을 새로운 조형을 제시하게 된다. 그는 어린 시절 山에서 했던 곤충채집의 경험을 토대로 1983년부터 “채집된 곤충,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기존의 공예 기능과 조형에 대한 재해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Functional Object인 이 작품들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Art Furniture였으며, Object의 일부분에 사람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었다. 그는 작은 곤충들의 하나의 움직임을 관여 위해 설계된 듯한 신비한 형상들을 흑단과 꽃머죽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자연의 유기적 형태를 확대시켜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조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최형훈은 다양한 형태와 재료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 총 11대에 Art Furniture 장자를 개발해 실내공간에서 Functional Object의 역할을 하는 가구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교목현강에서 이 같은 노력은 결국 Art Furniture가 한국현대미술계에 우류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됐고, 사회적으로는 대중들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이후 최형훈은 자연의 원초적 형상을 탐구한 “태초의 바람,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진행해 온 이 일련의 작품들은 최형훈이 탐구해 온 조형체계를 단적으로 상징해준다. 앞의 “채집된 곤충, 시리즈”가 원초적으로 ‘살방이 많은 조형’을 선보이며 Art Furniture로의 도약을 했던 것이라면, “태초의 바람, 시리즈”는 극도로 간결한 유기적인 곡선을 역시 실험을 실험해 오하리 “생각을 위해 하는 조형”을 제시하여 Art Furniture의 경계를 가져왔다.

“태초의 바람, 시리즈”는 느티나무나 스승도 접목한 관세, 자연석, 전통 목기구의 무늬를 등을 이용해 CD형, 대리석, 의자, 화강대, 콘을 등과 같이 사용자가 늘 인지면서 작가와 예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는 고도로 제형하게 제작한 조형의도하에 극단적인 간결함과 기능성이 동시에 구사된 조형을 창출해냈는데, 觀者으로 하여금 한국의 자연적인 장식인 안동산이나 구름, 고인돌, 솟대, 소나무 등을 연상케 한다. 특히 한국의 산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 등을 모인채 특색과 함께 형태와 양 속을 담았으므로 구조의 역학적인 관계도 충실할 뿐 아니라 오랜 세월이 경과된 돌의 둥근 최형훈은 조형원리가 “무엇이든 단선”을 갖게 해준다. 최형훈은 이에 앞서 CD를 같은 가구의 손잡이에 작

은 조약들을 써서 조형전체의 액센트를 귀·목재와 물의 조화'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세밀하게 커다란 화강암 돌을 목재 다층의 계층으로 쌓아 구조나 형태의 중요기능을 말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엄밀적인 의미로는 고요함에 느낄 수 있는 천연의 미를 채택함으로써 서구의 작품들의 특장인 강렬한 색채의 대비보다는 목재의 物性과 화강암 돌을 조화롭게 대비시켜 절제된 편안함을 표출시킨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계획된 의도로 섬세한 조형과정을 생략해 마치 '無爲의 예술'로 비유되게 하는 것은 한국미술에서 흔히 봐왔던 큰 특징이다. 예컨대 <태초의 바람> (8802)에서는 천연의 무드임과 자연스런 목재를 곡선으로 표현해 조연 목가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8906, 8907>에서의 바람과 물결은 작은 삼각은 한국의 자연을 형상화한 것이다.

목재와 돌만으로 창출한 전혀 새로운 조형체를 통해 전통성을 발현시킨 이 <태초의 바람>, 시리즈는 1990년대 이후 더욱 간결화면서도 부드러운 조형미를 선보이는데, 구조적으로는 평평한 긴 팔각과 통각이는 기능을 동시에 겸비한다. 이에 대해 미술평론가 누리자니(Nurizani)는 과리전 - 서문, (1990)에서 "그 만큼 서정적이고 아방가르드와 전통, 무기용과 가베용, 미끄러움과 거칠음 등이 공존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Furniture Artist를 본작이 없다. 수많은 부분들을 되도록 원형에 가깝게 그대로 놓아 두면서 세련된 작품을 만든다"라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태초의 바람>, 시리즈는 이 같은 외형적인 특징보다 내재

된 사상의 底底가 더욱 중요한 작품으로 다가온다. 이 작품들은 기능적으로는 움직임이 중요시됐고, 나무결이나 대리석의 무늬에서도 동적인 면이 간취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형 자체가 쉽게 변질할 수 없는 고요함, 즉 한 단어로 '寂'이라 말할 수 있는 심비스리 운 분위기를 발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禪僧들이 禪修를 하기 위한 명상으로 禪定에 들어 머뭇고 하지 않은 채 고요한 명상을 하는 듯한 분위기와 같다. 때문에 작품을 대하는 觀者이나 사용하는 주유자도 사치히 고요함에 빠져들어 어느덧 명상을 하게 된다.

禪宗(Chan zong)에서는 이 '寂'을 '寂' 또는 寂靜'이라고도 하는데, '寂'에는 '무로(Mu)'라는 뜻도 있으며, '寂'은 눈을 반쯤 뜨고 생각에 잠긴다는 뜻이다. 또한 '寂樂寂靜(항상 고요함에 드는 기쁨)'이란 대중들이 禪定을 修할때 경관함을 물리치고 '寂一心(靜慮一心)을 발현'이 때 禪樂하는 것처럼 모든 번뇌와 망상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다. 화평론의 작품에는 이렇듯 禪(Chan)과 스미치는 '寂'이 있어서 누구도 침사와 '寂寂'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 하여금 禪樂과 명상을 통해 평온함을 얻게 해준다. 이는 관동양적인 정신세계와 직접되는데, 1970년대 이후 서구인들이 동경해왔던 다향의 심비스리움이나 일본계 禪(Zen)으로 대표되던 Orientalism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적 심상이 실린 New Orientalism의 구한이라 여겨진다. 흥미롭게도 그의 책에는 실 눈송이를 禪定에 든 듯한 작은 대리석도 石造高麗細像이 연재나 그를 바라보며 수호하고 있다.

7



8



9



III. New Orientalism을 향하여

2000년 들어 최병훈의 작품향향은 다소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동안은 작업이나 간접한 작업 위주의 작품을 하다가 2007년 파리 다운데운 파달(Kalerie Down Town) 전시회를 계기로 아주 단순한 작업체를 추구하는 '유기적 모던(Organic Modern)'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기적 가치'에 대한 추구는 어디로 어디까지의 표현세계에 관계될 다가 파리 전시회를 계기로 표면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의자나 스물, 콘솔, 테이블 등에서 이러한 유기적 단순함을 쉽게 엿볼 수 있다.

향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이 '유기적 모던'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를 연구하고 있는 최병훈은 2008년 전시회 작품들에서는 우선 두 가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재료면에서 그동안 표면은 다소 무뎠던 자연적인 형태미가 돋보이는 화장단 등을 같이 고온 나무를 대치시켜 왔으나 이번에는 유기적인 형태에 좀더 부드러운 재료를 주기 위해서 화장단 등 대신 자연적인 마른나무를 사용하는 다음에 쓰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표면처리 방법인데, 소나무와 같은 색의 안료나무, 같이 고온 건조된 목재를 주로 써왔던 것에 비해 이제는 단풍나무에 전통적인 천연 유분을 7~8회 입혀서 유아하더라도 화려함이 있는 깊은 검은색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천연 작업을 위해 작업장에 유분 건조실까지 갖춰 놓고 전통적 기법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융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분의 특성은 나무질이 있고 인체에 유익한 천연도료로서 목재가 파손지 못하는 방수기능을 보충해 주므로 상당히 효율적이다. 유분을 한 년경시키는 것이 11~12세기에는 최고로 정교해 올라 대외적으로 배품로 쓰였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전통적인 유분기법을 재현해서 현대적인 가치를 부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목재의 새로운 세계를 찾았다.

조형면에서는 유기적인 단순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그만의 독특한 조형수단인 태극기 효과(다른 물질과의 조화), 즉 나무의 지배율과 둘의 무게율, 화장단의 자연스러움과 대타석의 부드러운, 깊은 색 윤곽과 깊은 대타석을 비교함으로써 긴장감을 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유분의 화려한 속에서도 여전히 '질'의 고요함이 있으나 역시의, 재료의 완성, 시리드와 다소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한다. 즉 관조자로 하여금 명상에 빠트려 드 어느새 만지고 싶은 욕망이 일게 하는데, 이 깊은 작품에 감정을 이입시켜 대화를 함으로써 '物化'의 경지로 인도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간략하게 고찰해 본바와 같이 Furniture Artist 최병훈은 문명 중 요한 의의를 지니는 작가이다. 그는 한국 현대공예를 이끌어 온 선도자로서 청년시절의 세제 문명에 대한 비적 체험과 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갖췄다. 그의 작품들은 최형적으로 Art Furniture를 매체로 삼아 근자에 알려지게 조르는 전통의 현대적 가치와 세계적인 '유기적 모던'을 추구하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평온한 한국적 심상이 담긴 New Orientalism을 구현하고 있다.

이번 파리전시회는 이 같은 최병훈의 조형세계에 동행해서 '유기적 모던'에 실린 New Orientalism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작가 프로필

강원도 출생

홍익대 미술대학 공예미술학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가구디자인 전공) 졸업

경기도 교수

한양대 예술기술훈수(가구디자인) 연구교수

미국 로트 아일랜드 디자인대학 객원교수

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 원장 역임

현재 홍익대 미술대학 목조형기학과 교수

한국가구학회 회장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다수 개최

연락처

홍익대 목조형기학과

02-320-1967

e-mail : bchoi@hongik.ac.kr

